

‘해운업 재건’ 구원투수 자본금 5兆 한국해양진흥공 출범

황호선 초대공사 사장 선임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따라
선사 선박확충 지원 집중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에 황호선 전 교수.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건을 책임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달 5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공식 발표한 지 11개월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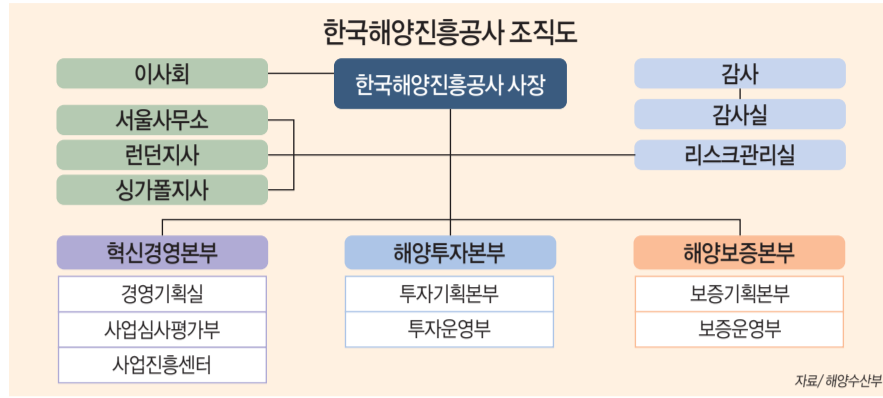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2월 세계 7위의 국적선사 한진해운이 최종 파산하고, 전체 해운 매출액이 10조 원 이상 줄어드는 등 해운산업의 위기가 심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해운산업 관련 공사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명시하고, 정부내 공사 설립 TF를 구성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법 제정을 준비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

지를 바탕으로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6일 법안이 공포됐다. 이후 해수부는 내부 TF 조직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공사 설립 작업을 준비했으며 2월 5일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율·확정했다.

이후 설립위원회는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사 정관, 내부 규정, 사업계획, 조직·인력 및 임직원 채용 등 실무적인 사항을 의결했고, 이달 2일 황호선 초대 공사 사장 선임과 함께 범상 정해진 설립 업무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 원이며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은 3조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미 2018년 예산에 반영한 현금 1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공사에 통합되는 (주)한국해양보증

보험, (주)한국선박해양의 기존 자본금이

약 1조5500억원으로 평가된다.

조직은 크게 혁신경영본부, 해양투자본부, 해양보증본부 3개로 구성되며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와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에 지사도 개설된다. 공사의 조직 정원은 101명(현원은 81명)이며, 향후 공사 업무가 확대되면 추가 인력 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와 함께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국가 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해

운정책 지원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지난 4월 5일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선사의 선박확충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한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발주 지원계획을 밝혔으며 신설되는 공사와 기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황호선 공사 사장은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해운업계가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며 “특히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해운산업 특성에 맞춰 기존 금융기관보다 폭넓고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8 타이베이식품박람회'에서 한국관을 둘러보는 현지인들의 모습. /aT

대만 “韓 농산물·과일막걸리 좋아요”

aT 타이베이식품박람회 참가
3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18 타이베이식품박람회(Food Taipei 2018)’에 참가해 신선 농산물과 음료 제품들과 관련된 3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4일 aT에 따르면 박람회에서 aT가 주관한 한국관에는 대만으로 수출되는 주요 신선 농산물인 배, 배추, 양배추 등이 현장에서 수출상담이 이어졌다. 또한, 쌀막걸리에 카카오넵스와 파인애플을 첨가한 과일 막걸리와 녹차로 만든 그린티믹

스, 오미자청 등 향이 좋은 음료 제품들이 현지 프랜차이즈 바이어들에게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불량 식용유 파동으로 최대의 라면회사가 청산하는 등 고품질 식용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무농약으로 재배한 생들기름이 20만 달러 현장 계약과 예약 주문이 이어지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대만은 중화권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신선 농산물을 포함한 우리 농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소비자의 기호와 트렌드에 맞는 상품의 대만시장 정착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신사업 육성 위해 에너지 R&D 체계 개편

정부가 신사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기업 연구개발(R&D) 체계 개편에 나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에너지기업 R&D 협의회’를 열어 에너지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 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규모(7719억원)를 넘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부분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기업은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 공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공기업 간 역할분담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17개 에너지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화 성과추진 및 투명성이 강화된다.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R&D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중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R&D를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공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업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3년간(2019~2021) 정부출연금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도로공사 전국 GS25 편의점서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앞으로 전국 GS편의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살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4일 김천 본사에서 GS리테일, (주)에어포인트와 ‘GS25 편의점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터넷을 벗어나 전국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까지 구입처를 확대했다.

판매모델은 (주)에어포인트의 최신형 모델인 ‘지패스(GPASS) 무선하이패스’로 무선 적외선 방식(IR)이다. 선·후불모든 하이패스카드와 호환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특별가 3만9800원이며, 통신사 제휴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향후 판매제품이 더 추가된다.

구매 후에는 제품에 포함된 USB케이블을 이용해 단말기를 자가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따라 하기 쉬운 매뉴얼을 제공해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누구나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주 52시간’ 공공기관 90% ‘탄력근무제’

86.7% 출근 시간 자율조정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이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부터 이미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361곳 중 88.9%인 321곳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 공공기관은 300인 이상 기업처럼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를 하되 출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을 시행 중인 공공기관이 313곳(86.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156곳(43.2%)이 도입했고, 하루 10시간 근무 등으로 주 5일 미만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집약근무형’은 54곳(15.0%)에서 채택했다.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은 8곳만 도입했다.

공공기관 중 4가지 유형을 모두 시행하는 곳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두 곳이고 일부 공공기관은 2~3개 유형의 근무를 병행했다.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40곳은 4가지 유형 중 어떤 형태의 탄력근무제도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수는 4년 전과 비교하면 101곳(45.9%) 증가한 수준이다.

2013년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 중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기관은 220곳(60.9%)이었다.

시차출퇴근형이 213곳(59.0%)으로 가장 많고 근무시간선택형 61곳(16.9%), 집약근무형 19곳(5.3%), 재량근무형 3곳(0.8%) 등이다.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몰릴 때 많이 일하고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이다. 지금은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5일
음력: 5월 22일

수도권 날씨
28 ~ 2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